



그림 · 최주현

21면에서 계속

러는데, 정승들은 삼 일을 그냥 못 먹어서요, 빌빌 빌빌 하거든. '저거를 어떻게 해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춘보 선사는 그렇게 당당하게 있으니, 그걸 알아야 뭐 자기네들도 좀 믿고 좀 안도할 텐데 믿지 못하겠거든. 도무지. 그러니까 그냥 입이 지저리 지저리 타고 죽었으니까 춘보 선사 뒤로다가 물러섰고, 정작 말할 사람은 뒤로 물러갔고 춘보 선사가 앞에 앉은 겁니다.

앞에 앉아서 허가를 뜯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 시간을 뜯은 거죠. 하하하. (대중 웃음) 전부 합장을 시키면서 뜯은 겁니다. 뜯으니까 웬 걸요. (대중 웃음) 그냥 때가 쪼질쪼질 붙은 거, 새까만 거, 털도 하나도 없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중구 천자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보물이 되는냐는 겁니다. '너희들, 너희들 이것어...' 그냥 천둥같이 호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춘보 선사는 당당히 '이것은 공자님이 삼천 제자를 가르칠 때 깔고 있던 호피다.' 이거야. 하하하. (대중 웃음)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앉아있던 걸 우리 조선국에서 이것을 간직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천국이 있느냐.' 이겁니다. 조선국에서 이걸 간직하게끔 되어 있으니 나라도 나라고, 이거 사람이 없는 나라 아니냐고 말아야. 이렇게 당당하게 하니깐 그만 천자가 그냥 기가 탁 죽었다. (대중 웃음) 그러가지고 무릎을 탁 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의인의 방식 하나 간직하지 못했어, 이게 참 송송하거 짝이 없다.'고 아주 그냥 고개 숙였죠, 춘보 선사한테.

아,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쫓겨 뭐냐 하면 아니 사글사글한 것 같아 아깝니까, 글썽, 사

글사글한 것 같아 새뽕이 없고 그냥 푸는 것도 금방 금방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디? 한 시간을 내리 풀어가지고 딱 놓으니까 사글사글한 그런 거를, 그래도 물을 뿌려서 좀 누글누글해서서 괜찮지만, 이제는 기가 죽어서 그냥 '이건 뎀데 그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태공이, (대중 웃음) 강태공이 시절을 낚시질할 때 쓰던 낚시야 이거야. '그런데 이것도 조선국에서 이렇게 간직해야 되느냐?' 하고 큰소리로 탕 울리니까 거기에 그냥 기가 탁 죽는 거야. 기가 탁 죽으니까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며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선 그냥 땅으로 눈을 떨어뜨리거든요. 그 위력이 너무나 당당하니까.

또 하나를 풀어서 놓으니까, 그때는 그냥 모두 눈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뭐 더디든지 말든지 합장을 하고 말입니다. 춘보 선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풀이 뭘냐? 그래서 또 풀어놓으니까는 그때 벼가 누렇게 앉은 (대중 웃음) 찌그러진 참, 그 질요강이지 않습니까? '질요강이? 이젠 그대 뭐 뭐가 보물이 되겠소?' 하니깐 그때 춘보 선사가 당당히 말합니다. '앞에 두가지는 천국 보물이지만은 이젠 우리나라 최초로 연구해서 (대중 웃음) 최초로 구운 거 때문에 이렇게 간직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조선국에 제일 가는 유물이 됩니다.' 하니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참, 이것은 잘 보관해 두어야 될 거라.'고 하면서 그대로 명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상자를 썼으로

속 상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 세 번째는 아주 천막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잘 간직하라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단번에 명을 내리기를 조선국에 공단 필, 금은보화 돈 이런 것을 수없이 배에다 실었다고 했어요. 배에다 실어서 조선국으로, 그 수없는 배에다 실었으니 그때 한참 죽을 판에 말아야. 우리네 살림이 죽을 판에 그렇게 많은 보물과 그 모든 걸 보내왔으니 나라가 궁색하던 때에 오죽이나 잘 됐겠습니까? 요긴하게, 그런데 춘보 선사는 가져온 보물을 좀 드러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싶다는 말도 안 하고, 허허허,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꼴꼴이 다니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또 그 친구 있죠, 못사는 친구. 거기 또 한 덩어리 쥐어주고요, 다 풀어놓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나

그렇기 때문에 시자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깐 대답은 해놓았는데 영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화짜지가 나서 말입니다. '아무개야!' 부르면 대답 안 하고, '에잇!' 그냥 속상해서 한다는 게 그만 아침에 부르면 세수를 떠다주고, 대답이 없이, 또 아침에 구멍 눈으로 그냥 보니까 아파서 그러고 있으면서 '아무개야!' 부르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수건 빨아가지고 가서 씻겨드리고선 나오고 하다 보니 이게 속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뭐든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스스로 자기가 알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어떠한 방책으로써 뭐가 잘못돼 돌아가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두는 까닭에 발전을 한다 이겁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걸 알게 되고, 남들이 막 얘기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럴으로써 그걸 깨닫고 또 발전을 잘 해나가고, 그것은 바

쪽에 없더라 하면서 '누워 있는 부처님, 앉아 있는 부처님, 서 있는 부처님이 다 당신이지 않아요.' 하고 선 읊었다. 그러나 지금 아마 그런다면 다도 망갔을 테죠. 지금은 지금대로의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기 싫은 말도 있었지만, 하기 좋은 말도 하기 싫은 말도 없이 그저 생각도 없이 여러분 만나면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나라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공부하는 얘기도 하는 것이, (시계를 보시고) 참, 너무나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어튼 오늘 이렇게 서로 앉아서 토론한 것을, 설법했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서로가 들어야 하는 한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가면서 내 얘기를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교를 숭상하는 데는 미신의 범을 조금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그것도,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기복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건 틀렸어.' 하지 말고, 스스로 유유히 융통성 있게 지혜 있게 어머니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안으로 굴리세요. 어머니도 이러한 뜻을 아시게끔 주인공에 모든 걸 놓고 가다보면 스스로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도 같이 돌아가게 되죠. 내가 행으로도 자꾸자꾸 달라지면 '아, 우리 머리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거기가 울은가봐.' 그 생각이 들 때에 '어머님 이라고 저러고...' 듣지 '오늘은 거기가 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하고서 '그런 것 같아요. 생활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무슨 불말이 이렇게 저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듯이 하다 보면 어머니도 좋아져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신도 흐트러지고 좋겠죠. 급하게 그냥 확 부러뜨리면 꺾어져요. 모든 게 불화가 일어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자신을 이끄는 데도 역시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천체 물리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날까지 이렇게 짧으면 길게 하고 길면 짧게 하고,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 창살 없는 인간 게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때나 물러가 터져서 지혜로운 일들을 할 때에, 내 얘기했죠. 춘보 선사가 일을 해놓고 춘보 선사가 감당을 했다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몸으로 다녀서 물질로 해서는 호국불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게끔 굴리는 그런 무(無)의 과학이 있다는 얘깁니다. 무(無)의 과학!

그러니까 그때 춘보 선사는 그쪽 천국의 천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해놓고, 조선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놓고, 즉 그런 걸 찾게 해놓고 머리 대책을 세운 겁니다. 머리머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사회적 문제도 그렇고 가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끌고 다니는 이 몸도 벌써 자기가 힘이 있다면 몸으로 다녀서 불교를 그렇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온 누리에 두루하기 때문에, 들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도 다 그렇게 돼 돌아가게끔 대책을 세워서 해가 되 면서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걸로 비유할까요? 어떤 스님이 부스럼이 크게 다리에 났거든요. 부스럼이 잔뜩 났는데 아침 새벽에도 그냥 이게 아프니까는 '아무개야!' 하고 시자를 부릅니다. 그러면 '에!' 그리고 대답할 거 아니냐? 대답을 했다 하면 딱 끊어지고 안 시켜요. 또 대답하면은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아요.

로 우리의 발전성이라고, 발전을 이루는 데 쓰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난리가 나지 않으면 또 부자 노릇 할 수도 없고 상인들이 상업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서로서로에 해나가지고 대책을 세워놓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자의 선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대답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대답을 해도 때려주고 대답을 안 해도 때려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무개야!' 불려서 대답을 '에.' 했으면 시켜야 할 텐데, 안 시키고 했으니 몇 년씩이나 붙어 있었습니까? 그거. 아마 지금 그러면 미쳤다고 든 거라고 그럴 겁니다. 뭐를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받지를 않았습니까. 세수물을 갖다 줘도 그 물로 씻지 않고 점룩점룩하고 나가서 세수물을 떠서 자기가 했습니까? 그러니 글썽이 자기가 생각할 땐 얼마나 가 막혔겠습니까? 시자가 스승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다 준 것은 안 썼다는 말입니다. 알고 떠다 주었다면 그런 썼을 텐데, 그래서 그 물은 안 썼기 때문에 그 시자한테는 오히려 화두가 된 거죠. '도대체 이거 무엇인가?' 하고 그냥 관(觀)했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해 가지고 스승이 세수물을 떠다 드려도 안 쓴 거, 불려서 대답을 해도 대답을 들은 척만 한 거, 이런 것을 다 알게 되고 물러가 터졌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러 들어왔던 사람이 다 떨어져고, 몇 안 남은 가운데 공부를 해가지고 무르

\* 위 법문은 1987년 1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일간난방비 비교표 ◆ ● 실내면 평수 10평기준 ●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없었으나 본 난방은 5~6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5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사무실,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전안 · 아산총판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리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041)545-5593, 010-8120-3592

### 보통콩 63일 작업 정성 신비의 약 콩 금단화

당뇨, 비만, 변비, 과음, 숙취 등에 특히 좋다는 **검정콩 금단화**는 자궁질환 등의 부인병과 위장병, 고혈압 등 성인병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

물나무와 소나무 액을 채취한 후 한달간 발효시켜 사용하므로 쫄음의 독성은 남아 있지 않고, 그 밖의 재료인 마늘, 토종꿀, 감초, 부추, 대파, 생강 등을 섞어 생즙을 낸 후 쫄음 송진과 다시 섞어 액즙을 만든다. 그 다음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액즙에 십여일간 담가 두었다가 꺼내어 2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63일이나 소요 된다. 콩은 서리태콩을 사용하고 콩도 반드시 토종콩만을 구해 사용한다.

◆ **체험사례**

- ① 혈액순환이 안되고, 손과 발이 냉했었는데 금단화 20정도 먹고 온 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 광주 최숙자 님
- ② 발 뒤꿈치가 피가 나고 갈라졌었는데 7,8개월 금단화를 먹고 난뒤 갈라짐이 없어지고 맨질 맨질해졌습니다. - 평창동 김미자 님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1인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 **"졸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고시마현 구니와에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딸로 된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2)3437-8282

###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급 불 전 합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